**교제와 나눔**

**ㆍ교회당예배:** 매주일 15시 예배, 비대면예배 16시에 가능.

매주 토요일에 예배참석 신청 마감.

**ㆍ대림절 첫 주일:** 다음 주일

**ㆍ예산기초 위한 제직운영위원회:** 다음 주일 예배 후

**ㆍ헌금:** 비대면 예배드리신 분들은 교회구좌로 송금해 주세요.

**ㆍ2022년 매일성경 신청:** 오늘까지

**ㆍ생일축하:** 서희정, 허지은, 서연주, 송유진

**\*\* 함께 기도합시다 \*\***

1)교회당예배가 은혜롭고 안전하게 하소서.

2)코로나19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소서.

3)확진자들을 속히 회복시켜주시고, 백신접종 과정이 원활하게 하소서.

4)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삿9:22-45 월/삿9:46-57 화/삿10:1-18 수/삿11:1-11

목/삿11:12-28 금/삿11:29-40 토/삿12:1-15 일/삿13:1-14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94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11월 21일** | **11월 28일** | **12월 5일** | **12월 12일** |
| **예배기도** | 박종희 | 김혜경 | 허지은 | 조경숙 |
| **말씀일기** | 김성희 | 박상훈 | 조준호 | 석호선 |
| **안내위원** | 예배부 |
| **헌금위원** | 우선화 조경숙 | 김학순 서영지 |

**38-47호 2021년 11월 21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116:2)

주일예배 15: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5:00 Teestube

청소년부 15:00 Teestube

청년부 성경공부 16시 Teestube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76-5574 1290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Totensonntag)**

**(유**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예배부름/Eingangsgebet ………………………………...........………………………………………………............. | 다함께인도자 |  |
| ※찬송/Gemeindelied ……….......................... 21장 3절 ....................................... | 다 함 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40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262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말씀일기/Bibeltagebuch …………………………………………….............................찬양/Chor ……………………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박종희 권사김성희 사모장로일동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창세기 6:1-12 …………………………. | 인도자 |
| .설교/Predigt ..............................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 ………………… | 손교훈 목사 |
| 기도/Gebet …………........………………………………………………....................................찬송/Gemeindelied .………………………. 539장 1,4절 ……………..…………..봉헌/Kollekte……….......................................................................................................... | 설교자다 함 께다 함 께 |
| 교제/Bekanntmachung ……….……………………………………..............……….............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s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 ‘폼생폼사’ (사사기 8장) ◀**

자신들을 푸대접했다고 원망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노여움을 겸손과 지혜로 멋지게 풀어낸 기드온(1-3). 도망가는 적장들을 끝까지 쫓아가 잡아 죽인 후, 열광하는 백성들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22) 부탁하는데도 자신은 물론 자신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라고 하며 멋지게 물러난 기드온(22-23). 정말 폼 난다. 나도 꼭 본받아야 할 멋진 모습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멋진 기드온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니 인생을 끝까지 제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다. 기왕에 내려 놓는 거 다 내려놓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존심도 꺾고 세습의 유혹도 이겨낸 그가 희한한 디자인의 이방 장식품들에는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21).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고,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쳐 죽인 그가, 그들이 걸고 달고 다니던 장식품에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결국 그 장식품들을 모아 희한한 제사장복을 만들어 집안에 걸어둠으로써,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와서 빌고 제사를 지내는 등 “음란” 한 기복 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말았다(27).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놀라운 용맹을 떨쳤고, 백성들의 자발적인 세습요구도 단호히 물리쳤던 큰 사람이 마지막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소인배가 되었다. 자기 이름 뜻 그대로 잘라내는 일을 위해 크게 쓰임 받았지만, 또한 그 잘라내는 일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

“폼생폼사” 폼나게 살고 죽으려 했던 그의 근본적인 한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구했던 기드온은 물질과 풍요의 신 바알 제단을 허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물질 만능 문화 속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것 아닐까? 뽑아도 잘라내도 쉬이 제거할 수 없었던 지독한 물질만능주의가 기드온의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 그 물질의 강력한 유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쉽게 무릎 꿇게 되었다는, 너무나도 가슴 시린 이야기. 그 가슴 안고 기도 올린다. “주님, 진정 주 안에서 폼 나게 살고 폼 나게 죽게 하소서!”